

## [경기문화유산을 찾아서 14 - 남한산성 한흥사지]

# 나라 지키는 염불소리 올려पर्지던 곳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는 연간 330만 명의 탐방객들이 다녀간다. 이들 대부분은 남한산성을 지키는 데 승병의 공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잘 모른다.

그간 몇몇 사료를 통해 당시 운영된 남한산성 내 승영사찰의 이름과 위치, 승군수와 무기수에 관한 기록이 전해질 뿐이었는데 ‘한흥사지’의 발굴로 조선시대 남한산성 승영사찰의 전모가 드러났다.

승영사찰이란 승군이 머무는 사찰로, 불사공간(佛事空間)과 군영공간(軍營空間)을 모두 갖춘 사찰을 말한다. 승영사찰의 건립 목적은 산성 등 주요 방어거점이 되는 위치에 승려들이 머물면서 방어의 수축과 수비를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산세가 높고 가팔라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므로, 승려들을 모집해 들여보내지 않으면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조선시대 군역의 문란으로 군인만으로는 군사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점도 또 다른 이유였다.

남한산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진왜란 때 해전에 참여했던 각성(覺性, 1575~1660)은 인조 2년(1624)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으로 임명돼 팔도의 승군을 모집, 3년 만에 성을 완성시켰다.

이때 성 내부 수비가 필요한 요해처(要害處) 부근에 7개의 승영사찰을 조성해 부역에 동원된 승군



남한산성 한흥사지 원경. 중앙부가 불사공간이고, 10시 방향의 건물터가 군영공간이다. /경기문화재단 제공

끝난 후에도 산성의 수축과 유지 보수, 군기 및 들에게 음식과 머물 공간을 제공해 줬다. 축성이 화약의 보관, 군사 훈련과 무기 제조 등의 임무를 승군이 분담해 했다.

당시 승려들이 성곽 축조나 국가 공사에 동원된 데는 지방에 유능한 기술을 갖춘 민간 장인이 많지 않았던 반면, 승려들은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청에서는 “민정이 3일 걸려 일할 것을 승군은 하루도 걸리지 않는데 승려들이 부역할 때 사력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에 남한산성 내에는 7개의 사찰에 대략 400여 명의 승군이 배치됐다.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지난 2012년 남한산성 한흥사지를 발굴했다. 한흥사지는 남용성 가까이에 건립된 유적으로, 17세기에 창건돼 20세기 초까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람의 구조는 ‘중심축선상에 불전과 누각을 두고 좌우에 승방이 둘러싸는 산지중정형 가람’과 ‘군기 고지·창고지·군포지를 중심으로 한 군영공간’이 결합된 독특한 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절터임에도 철촉·도자·창·탄환 등의 무기류가 출토돼, 역사 속 기록으로만 어렵פות이 전해오던 호국사찰의 일면이 드러났다.

흔히 문화유산은 역사교육의 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승영사찰 한흥사지의 발굴은 ‘호국불교’를 가능할 수 있는 귀중한 고고건축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복원이 이뤄져 호국불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전파하는 ‘역사교육의 도량’이 됐으면 한다.